

<2013년11월9일 토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내 증인이 되라 시대의 말씀을 전하라

본문: 사도행전 1장 8-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이 귀한 말씀을 전하라. 전할 줄 모르면 끌어와라. 이 좋은 말씀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와라.”

요즘에 새로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특히 말씀하지만 이미 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씨를 갖고 있는데 왜 씨를 가지고 있느냐? 뿌려라! 이 복음의 말씀을 왜 가지고 있느냐? 전하라! 그리고 왜 가만히 있느냐? 증거해야지. 말해줘야지. 가서 말해주어라!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증거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증거를 받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 돌아오게 되리라.”

항상 순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입니다. 물은 한 방울이 되었든지 댐 물이 되었든지 낮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선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선으로 지향하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 전하면 그들이 듣고서 다시금 생각하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전에 과거에 기성에서 전하던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니 새로 전하라.”

새로운 시대의 말씀은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들은 사람보다 아직 안 들은 사람이 더 필요로 합니다. 들은 사람은 “나는 들었다. 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예수 믿고 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10명중에 잘 해야 한 명이나 두 명 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한번 가져볼까? 그렇게 좋은 복음이 있고 그와 같이 좋은 진리가 있으면 들어보겠다.” 합니다.

이미 물건을 산 사람들은 “나 샀습니다.” 합니다. “전자제품, 밥솥 안 사십니까?” 하면 “아, 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때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쓰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물어요?”

“아니, 한 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어떤 밥솥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값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값은 훨씬 그것보다 낮습니다. 반절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도 좋아서 나도 사놓고, 너무 좋아서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도매 값에 넘기만 하지 않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전기밥솥을 써봤는데 전기밥솥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밥솥을 샀는데 좋은 밥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좋습니다. 더 이상적입니다. 나도 그것 사봤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구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새시대의 사람들은 물건을 “웬만하면 장만해볼까?” 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보고는 싶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원래는 3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딱 3시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3시간도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30분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전하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줄 압니까? 참 먹고살기 바쁜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꼭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줘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영감이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전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분짜리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3분짜리도 있으니 이런 말씀을 센스있게, 재치있게 전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라!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니다. 나도 뽀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다. 너무너무 뽀박하고 반대했는데 되는 꼴이 하나도 없더라.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 말씀을 듣고 한 달이 못 되었는데 내 인생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그리고 흑자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본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과거에 뽀박하며 잘못되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 밖에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은 새로운 생명들이 한번 멋있게 해보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갔을 때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멀리 새벽 산성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입니다.

좋은 장소 주셨으니
좋은 기도 하리로다
좋은 산을 주셨으니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리로다
좋은 말씀 주셨으니
모두에게 전해주어
좋은 사람 만들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년역사 지상천국 살아가리

이 말씀이 영감으로 스치며 기도했습니다. 좋은 장소 주셨으니 좋은 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늘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주겠다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니 오늘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서 시대를 더욱 깨닫게 하여 나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깨닫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동안 이상세계를 떠나가겠다고 이런 시의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해봐야 압니다.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혼자만 기쁘고

즐겁고, 혼자만 역시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나를 증거해 달라. 내가 증거할 수 없으니 너희가 증거하도록 하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나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도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해줄 때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모르고 한다. 나도 해봤다. 나도 너희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다시 성서의 근본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기독교에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내 말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따라 오게 된 사람들!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니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금방은 못 전할 것입니다. 데려오기만 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는 가봤냐? 나는 가봤다. 너 들어봤냐?”

“안 들어봤다.”

“나는 말씀 끝까지 다 들어봤다.”

그러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아주 유능한 말씀의 강사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만일 없으면 여러분이 계속 끌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들은 말씀도 해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공적을 세우고, 생명의 공적을 꼭 세워야 됩니다.

전도하라! 믿습니까? 전도하는 데에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

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는 길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편지로 전도하는 길, 전화로 전도하는 길, 가까이 지내면서 전도하는 길, 친구로 삼으면서 전도하는 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길, 그리고 같이 놀면서 전도하는 길, 이런 방법이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왜 수백 가지인가 하면 전도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저마다 다릅니다. 수백 명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다양하고 여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해주어 전도하는 길, 그리고 성지땅 월명동을 같이 구경시키면서 자꾸 묻는 대로 대답해주다 보니까 전도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할 방법이 너무 많은데 왜 ‘전도를 어떻게 할까? 무슨 방법으로 할까?’ 그러니까?

“쉽게 전도하라. 너무 어렵지 않게 하라.”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옛날 임금님의 큰 조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신하는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위축감 받을 필요가 없고, 너무 너무 기쁜 일이요, 보람된 일이요, 의젓한 일이요, 인생으로서 가장 큰 직임을 가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람있게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의식할 것 없습니다.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반대하던 사람들이든, 구시대 사람이든 누구도 의식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도 하겠습니다.

<기 도>

“이제 시대의 말씀을 듣고 나를 증거하라 나를 따르는 자들아 ! 그리고 시대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일어난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만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며 주 예수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충만히 더해주시기를 삼위의 능력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